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국제통상학과	이름	박XX
파견국가	스페인	파견도시	하엔
파견대학	University of Jaen	파견기간	1학기
귀국여부	*2023/7/14*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하엔은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에 위치한 작은 도시입니다. 그라나다에서 버스로 한시간 정도 걸리는 곳이며 공항은 없지만 그리 작은 도시는 아닙니다. 하엔대학교는 교환학생이 많이 오는 학교로 유명해 다양한 국정의 학생들이 모여 있습니다. 교환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업을 스페인어 그리고 영어로 진행합니다.*
2023-1학기 수업	*교환학생들을 대상으로 어학당 수업 최대 2개를 무료로 들을 수 있게 해줍니다. 저는 Spanish Oral 1, General A1.1를 어학당 수업에서 들었습니다. 교수님이 여러분 계신데 저는 이 두 수업을 모두 Laura 교수님께 수업을 들으며 정말 즐겁게 공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문법이나 어휘 같은 것들을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알려주지 않는 편이라 스스로 좀 더 많이 공부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들으니 새롭기도 하고 유익했습니다. 전공 수업으로는 Fundamental of Marketing 수업을 들었습니다. 총 3일 수업을 듣는데 이틀은 이론 수업을 하루는 실습 수업을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실습 수업은 주로 조별활동이나 교수님께서 내주시는 과제들을 해결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엔대학교는 정말 자율적인 대학교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수업들이 출석체크를 하지 않고 결석하는 친구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수님들이 학생들의 편의를 참 많이 봐주십니다. 수업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질문도 많이 하고 교수님께서 학생들의 질문에 하나하나 잘 답해주시곤 했습니다.*
X	*X*

프로그램 운영	*우선 여기선 교환학생을 erasmus라고 부릅니다. Erasmus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들도 있고 esn카드를 만들면 라이언에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처에 가서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esn 학생들 대상으로 왓츠앱 단톡방이 있으니 거기서 다양한 정보를 접하거나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우선 1월말에서 3월 사이에는 한국보다는 덜 춥지만 그래도 겨울이라고 느낄 정도의 추위였습니다. 스페인이라 그래서 무조건 더울거란 생각으로 왔다간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난방이 잘되는 한국의 집들과는 달리 집의 공기가 추워서 2월까지는 전기장판을 꼭 틀고 잤습니다. 3월 중반에서 6월까지는 스페인의 뜨거운 햇살을 경험할 수 있는 날씨였습니다. 해가 정말 뜨겁고 덥지만 습하지 않기 때문에 그늘에 앉아있으면 괜찮아질 정도의 더위였습니다. 시에스타가 왜 생겼는지 알 수 있는 햇살이었답니다. 하지만 하엔의 날씨는 대개 좋고 하늘은 정말 매일매일 예뻐서 날씨가 사람의 기분에 큰 기여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안전	*한번도 이 동네가 위험하다는 생각을 한적이 없었습니다. 여자인 제가 혼자 새벽에 센트로부터 집까지 걸어가는데 무섭다는 생각이 들지도 않았고 인종차별도 한번도 당한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 바로 앞에서 살고 있는 친구들 중 한 명은 스페인 초등학생에게 인종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집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통 인종차별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주 어린 초등학생이나 십대들이라고 합니다. 제가 운이 좋았던 걸수도 있겠지만 이번 교환학생 생활을 하면서 대부분의 한국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말한 하엔의 장점 중 하나가 안전하다였습니다.*
숙소	*학교기숙사( ) 홈스테이 ( ) 외부 숙소(O) 기타( )* *저는 하엔에 가기 전에 하엔으로 가는 다른 학교 사람에게 연락이 와서 그 분들과 함께 카페에서 집을 양도받아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살았던 분들도 한국분들이었고 집주인분이 한국을 매우 좋아하셔서 순탄하게 숙소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위치도 좋고 방도 좋고 화장실도 2개에다가 아파트 느낌의 집이라 관리인도 계셔서 정말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또한 단지 내에 주민들만 사용 가능한 수영장이 있어서 애용하였습니다.*

식사	*학교 Meal Plan ( ) 학교식당 개별이용 (O) 홈스테이 ( )* *외부식당 (O) 직접 요리 (O) 기타 ( )* *주로 장봐서 집에서 요리해서 먹었습니다. 유럽은 식료품이 정말 저렴해서 장을 한가득 봐도 5만원이 넘지 않았습니다. 특히 고기, 과일, 빵이 정말 저렴해서 집에서 요리해서 먹기 정말 좋았습니다. 과일을 정말 원없이 먹었답니다. 학교에는 카페테리아가 있습니다. 공강에 점심 먹으러 가면 1시30분부터 3시30분까지는 학식느낌의 점심을 먹을 수 있고 그 이외 시간에는 빵이나 샌드위치 등 다양한 것들을 판매합니다. 동네 가게가 생각보다 비싼편은 아니지만 집에서 요리해서 먹는 것 보다는 비싼편이라 대부분 집에서 밥을 해결했던 것 같습니다. 그치만 여러명이서 외식을 할때에는 더치페이를 하면 맛있는 음식들을 비싸지 않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보통 타파스바에 가면 10유로 정도 지출했었습니다.*
교통	*하엔의 교통수단으로는 버스와 렌페 그리고 택시가 있습니다. 버스는 스페인의 다른 도시들에 비해 정말 저렴한 편입니다. 한번 탈 때 0.25유로라서 집에서 센트로 가거나 학교에서 집에 올 때 버스카드 찍고 잘타고 다녔습니다. 외국인 친구들은 택시를 자주 사용하던데 저는 한번도 택시를 이용한적은 없습니다. 버스가 매우 저렴해서 굳이 택시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여행을 갈때에는 알사버스와 렌페를 이용했습니다. 말라가, 그라나다, 등 멀지 않은 도시에 갈때에는 알사버스를 타고 움직였습니다. 렌페는 마드리드,세비야 아보노(무제한권)을 구매하여 이용했습니다. 렌페는 아보노 구매하는 것이 무조건 이득이니 무조건 아보노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15,000,000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약 80만원 (핀에어 경유 1회, 인천>헬싱키>말라가)	최대한 빨리 사면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Fees	*X*	
보험료	*약 35만원 (인슈플러스 골드플러스 보험)*	
숙소	1달에 약 30만원 (와이파이비, 수도세, 온수세, 전기세)	하엔은 스페인 다른 지역에 비해 집값이 저렴한 편입니다
식비	한달에 30만원정도 (외식,식재료 등등)	
교통비	20유로 (교통카드)	
책값	X	Platea에 올라온 수업 자료 다운받아 사용합니다
여행 비용	대략 1000만원 (스페인 도시들, 프랑스, 영국, 포르투갈, 모로코, 스위스, 동유럽 등)	저는 여행을 꽤 많이 다닌 편이라 비용에서 여행이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합계	약 15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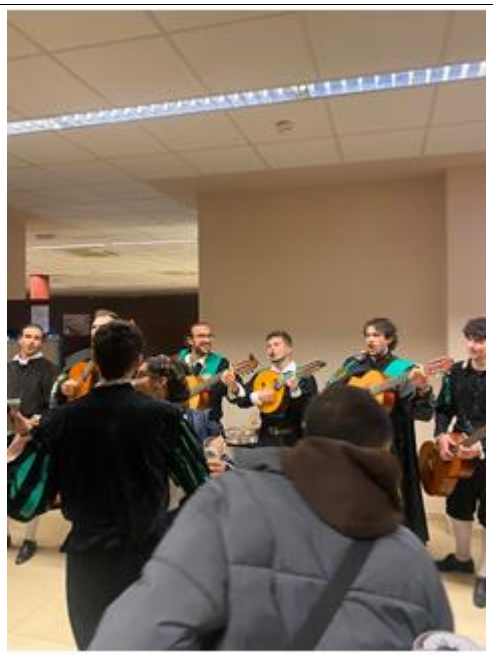
5. 출국 전 준비사항

스페인 학생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대사관에 날짜를 미리 예약해야 하고 비자면접을 보기 전에 미리 서류를 다 발급 받아야 합니다. 또한 서류 준비를 하면서 공증과 아포스티유를 받아야하는데 이는 유효기간도 있으니 미리 비자 면접 예약을 잡기 전에 이를 잘 고려해서 잡기를 바랍니다. 하엔에 가는 방법은 우선 마드리드 공항이나 말라가 공항에 도착하는 것에 따라 이동수단이 달라집니다. 개인적으로는 마드리드로 도착하여 렌페를 타고 하엔으로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록 4시간 동안 기차를 타야하지만 알사버스를 타고 가는것보다 덜 피곤할 것입니다. 여행자 보험은 인슈플러스에서 들면 학교에서 원하는 조건을 다 충족한 보험에 들 수 있습니다. 출국 전에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리스트로 작성해서 하나하나 지워나가며 준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생각보다 준비할 것들이 많으니 촉박하게 준비하지 마시고 여유롭게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6. 본인 소감 및 평가

우선 교환학생을 고민하고 있다면 저는 무조건 고민하지 말고 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교환학생은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고 대학생활의 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에 가고 싶은 마음에 원래는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고 싶어했지만 유럽여행에 대해 관심이 생기면서 차라리 교환학생을 유럽으로 가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의 교환학생 프로그램 erasmus를 통해 다양한 나라의 학생들과 시간을 보내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eu학생 비자가 있으니까 여행을 다니면서 입장료나 티켓 같은 것들을 할인 받거나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평소에 미술작품 같은 것들에 관심이 있지 않았는데 세계 3대 미술관인 곳들을 무료로 갈 수 있다보니 작품들을 보는 재미도 있고 책에서만 보던 그림과 작품들을 실물로 볼 수 있다는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정말 귀중한 경험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비슷한 나이대의 여러나라 학생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니까 대부분 비슷한 걱정거리와 고민을 안고 있다는 것도 알게되었습니다. 세상은 정말 넓고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계적 이슈에 대해 이야기하고 교환학생 끝나고의 삶에 대해 다같이 고민하던 마지막 피크닉은 정말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교환학생으로 인해 시야가 넓어지고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 방문(국제학생증으로 무료입장 가능)		불레발 공원에서 피크닉 (불레발은 하엔에서 가장 큰 공원으로 피크닉 즐기기 좋은 공원)
		
하엔대학교 교환학생 웰컴 행사		웰컴행사에서 본 악단

Esn 친구들과 함께 한 피크닉		시험기간에 도서관에서 공부